

미성년자법, 성숙한 미성년자의 동의 및 예방접종 The Infants Act, Mature Minor Consent and Immunization

미성년자법이란?

미성년자법(Infants Act)에는 만 19 세 미만 아동의 법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는 아동의 보건의료도 들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법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할 때 특정 의료가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확실하고, 해당 아동이 그 의료의 세부적 내용(위험 및 효과)을 이해할 경우, 미성년자도 그 의료에 대해 스스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에 대한 해당 아동의 이해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몫입니다.

미성년자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223_01

‘성숙한 미성년자의 동의’란?

만 19 세 미만 아동은 미성년자입니다. ‘성숙한 미성년자의 동의’란 동의에 필요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평가한 아동이 특정 보건의료에 대해 스스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동의 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아동을 ‘성숙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성숙한 미성년자인 아동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소망과 상관없이 스스로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BC 주는 아동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이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이 다음을 이해한다고 확신할 경우 그 부모/후견인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해당 아동의 동의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의료의 필요성
- 해당 의료의 내용
- 해당 의료를 받을 때의 효과와 위험

‘성숙한 미성년자의 동의’가 예방접종과 무슨 상관이 있나?

BC 주에서는 학령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이 6 학년 및 9 학년에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임시로 설치되는 예방접종 클리닉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지만 해당 아동이 원하면 보건소, 청소년 클리닉, 일반 1 차 진료소, 약국 등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방접종을 맞건, 해당 아동이 예방접종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했을 경우, 해당 아동이 스스로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6 학년생 아동은 부모/후견인이 자녀의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그러나 9 학년생 아동은 스스로 동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정 예방접종을 맞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본인이 이해할 경우, 부모/후견인이 동의한 예방접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동의한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은 해당 아동의 허락 없이는 부모/후견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동이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하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의 동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HealthLinkBC File 등의 BC 주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맞아야 할 예방접종
- 예방접종의 효과
- 예방접종을 맞지 않을 경우의 위험
- 일반적이고 예상되는 부작용
- 드물게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
- 예방접종을 맞지 말아야 할 의학적 이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이 위와 같은 정보를 읽고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아동이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해당 아동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9학년생의 경우 부모/후견인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

9학년에 시행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서와 HealthLinkBC File 이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부모/후견인은 자녀와 함께 해당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읽어보고 그에 대해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사춘기 자녀가 자신의 보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학년생은 부모/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가 있건 없건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